

유·스퀘어 문화관, 올해도 클래식으로 만나요

2020 아름다운 음악회 시리즈 라인업 공개...18개 공연 김정원·원재연·김남윤과 코리안솔로이스츠 앙상블 등

매년 다양한 클래식 스타들로 관객과 만나는 유·스퀘어 문화관이 2020 아름다운 음악회 시리즈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는 첼리스트 이정란, 플루티스트 윤혜리, 피아니스트 임주희·손민수·김정원·김다솔 등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온다.

먼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첫 타자로 나선다.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이 16일 열린데,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과에 입학한 박씨는 국내 최초로 하모니카 연주를 전공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최희준 교수 사사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과정을 밟으며 음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조영훈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다음달 20일에는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 조성호가 이끄는 목관오중주 '뷔에르 앙상블'이 관객과 만난다. 뷔에르 앙상블은 리더인 클라리넷 조성호를 주축으로 플루트 유지홍, 오보에 고관수, 바순 이은호, 호른 주홍진 등으로 2013년 결성됐다.

3월 5일과 30일에는 이정란 첼로 리사이틀과 문용휘(첼로)&원재연(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이 각각 열리며 이어 윤혜리 플루트 리사이틀(4월 10일)과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4월 25일)의 무대가 예정됐다.



김정원



김남윤

이러한 관객들의 요청으로 초청된 테너 김세일의 '시인의 사랑' 무대가 5월 4일 열린다. 리트(독일 가곡) 전문 테너 김세일은 서울예고 재학 시절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 산타체칠리아음악원, 스위스 제네바 음악원, 스위스 취리히 음악대 최고연주자과정을 거쳐 아테네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등을 수상했다.

6월중에는 북유럽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LUMO 목관오중주'의 공연(6월 9일)과 김남윤 음악감독이 이끄는 '코리안솔로이스츠앙상블'의 무대(6월 23일)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정명훈과 협연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임주희의 무대는 7월 열린다. 임 씨는 서울시향,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여러 무대에 초청받으며 실력을 선보였다.

이어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7월16일)과 트리오제이

드 무대(8월 21일)도 마련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소타나'(9월 14일)로 관객과 만난다. 손씨는 1994년 한예중 음악원에 수석 입학했다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유학,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2006년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보스턴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이 만나 결성한 '신박 듀오 피아노 콘서트'는 10월 8일에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리사이틀은 11월 17일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9년~2017년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2017년 네이버 V살롱콘서트 총예술감독, 세종문화회관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리사이틀은 11월 21일 열리며 올해의 마지막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장식한다. 김다솔은 '베토벤 소타나 시리즈'(12월 15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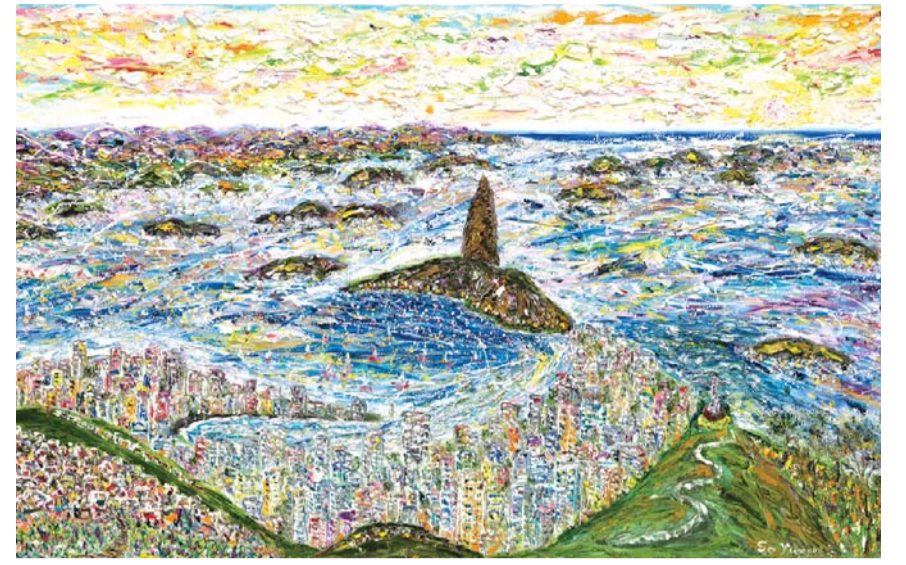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2020	
U-Square Cultural Center Kumho Art Hall	
1. 16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
2. 20	뷔에르 앙상블
3. 5	이정란 첼로 리사이틀
3. 30	문용휘&원재연 듀오 콘서트
4. 10	윤혜리 플루트 리사이틀
4. 25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5. 4	테너 김세일의 시인의 사랑
6. 9	LUMO 목관오중주
6. 23	코리안솔로이스츠앙상블
7. 3	임주희 피아노 리사이틀
7. 16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
8. 21	트리오 제이드
9. 14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10. 8	신박 피아노 듀오 콘서트
11. 17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
11. 21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12. 15	김다솔 피아노 리사이틀
12.	박규희 기타 리사이틀



'아름다운 리우데자네이루와 구세주 상'

'눈 대신 마음으로' 그리는 세계풍광

소영일 교수 작품 40여점 전시...9일까지 금호갤러리

소영일(69)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매일 매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10여년 전 갑자기 찾아온 녹내장이 악화돼 눈이 보이지 않게 됐고 결국 학교를 떠나야했던 절망 속에서 시작한 그에게 '그림'은 한줄기 빛이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림을 그린 그는 2017년 서울 인영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소 교수가 고향 광주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줄곧 그려온 여행 풍경화와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한 추상화 등 4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인고를 거쳐 연세대 경영학과와 미국 아브라함 링컨대학에서 수학한 소 교수는 공인 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에도 합격해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모교인 연세대로 옮겨 경영학과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그의 작품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이 눈에 띈다. 학교에서 '세계경영전략'을 가르친 그는 자연스레 전세계 문화·역사 등을 등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수차례 외국을 다녀왔다.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세계 각국의 풍경과 풍물이 주제가 된 것은 당연했다.

이번 전시에서도 중국 사천성의 아름다운 호수 오화해(五花海),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포르투갈 마린하 해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루의 예수 그리스도상 등 다채로운 세계 풍광을 그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한 추상작품의 소재는 다채롭다. 시, 동화, 소설 등 문학 작품은 물론, 지금은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 피아노 소나타 '월광' 등 클래식 음악들을 화폭에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전시중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 그의 눈 상태는 형태를 흐릿하게 구별할 정도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눈을 감고' 그리기도 한다.

원주에서 작업하다 나주 요양병원에 머무는 어머니 간호를 위해 1년여전 광주에 작업실을 꾸렸던 그는 조만간 아들이 살고 있는 호수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해외 작가들과 교류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호주를 베이스캠프 삼아 작업도 열심히 하고, 5-6년 동안은 전 세계를 여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싶은 것들은 무한정으로 많습니니다. 눈 상태는 더 좋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그리기에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광주 전시를 비롯해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전했다. 호주로 떠나더라도 1년에 적어도 한차례씩은 꼭 고향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트리오 제이드'



원재연

이러한 관객들의 요청으로 초청된 테너 김세일의 '시인의 사랑' 무대가 5월 4일 열린다. 리트(독일 가곡) 전문 테너 김세일은 서울예고 재학 시절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 산타체칠리아음악원, 스위스 제네바 음악원, 스위스 취리히 음악대 최고연주자과정을 거쳐 아테네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등을 수상했다.

6월중에는 북유럽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LUMO 목관오중주'의 공연(6월 9일)과 김남윤 음악감독이 이끄는 '코리안솔로이스츠앙상블'의 무대(6월 23일)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정명훈과 협연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임주희의 무대는 7월 열린다. 임 씨는 서울시향,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여러 무대에 초청받으며 실력을 선보였다.

이어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7월16일)과 트리오제이

드 무대(8월 21일)도 마련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소타나'(9월 14일)로 관객과 만난다. 손씨는 1994년 한예중 음악원에 수석 입학했다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유학,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2006년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보스턴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이 만나 결성한 '신박 듀오 피아노 콘서트'는 10월 8일에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리사이틀은 11월 17일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9년~2017년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2017년 네이버 V살롱콘서트 총예술감독, 세종문화회관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리사이틀은 11월 21일 열리며 올해의 마지막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장식한다. 김다솔은 '베토벤 소타나 시리즈'(12월 15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등의 연주자들과 연주 일정을 협의 중이다.

'페르소나' 김현주 개인전, 9일까지 갤러리 D

김현주 작가 첫 번째 개인전이 9일까지 갤러리 D(광주시 동구 중앙로)에서 열린다.

'페르소나(Persona)'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페르소나 연작을 포함해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을 뜻하는 단어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한다. 작가는 자아의 어두운 면이 표출되는 또 다른 인격을 나무에 대입하고 이를 의인화해 인간의 내적갈등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연작 중 '페르소나 II'는 중앙에서 있는 인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무 형상과 그림자에 비친 모습을 대비시켜 이중적인 인간의 본성을 차

가우면서도 몽환적인 색채로 표현했다. 작품 '다시 태어나도 나라'는 작가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문무대왕릉의 신비로움에 매료돼 그 일화를 삼축으로 원경을 그리는 한국화 기법을 가미해 표현했다.

동강대학교 응용미술과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한 김 작가는 한국화와 유화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전북환경청 새만금 풍경화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persona II'

소설가 이기호·김금희·최은영,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저작권 양도 요구' 반발

이기호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비롯해 김금희·최은영 소설가는 최근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이상문학상 주최측 문학사상사 요구에 반발해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표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작가들이 수상을 거부하면서 20일 예정된 수상자 발표가 연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대상과 우수상 작품을 수록해 매년 1월 수상작집을 발간하는데, 이번처럼 수상자가 상을 반납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이문열, 이정준, 최인호, 김훈, 한강 등 당대



이기호 소설가

최고로 인정받던 작가들을 수상자로 배출하며 오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상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은 불가피해 됐다.

김금희 작가는 전달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을 줬다고 주최 측이 작가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작가의 권리를 취하면서 주는 건 상이 아니지 않느냐. 작가를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기호 작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따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젠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니까"라고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벤들리관광호텔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